

50년전 희귀만화

희귀만화 소장본 공개해 연구자료로 이용했으면

누런 종이에 검정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란색도 아닌 글자와 그림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한 1950, 60년대의 만화책들이 자료 연구를 위해 다시 태어났다.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에서 기획한 '희귀만화 영인본 1집'이 바로 그것.

'희귀만화 영인본 1집'은 부천만화정보센터의 한국만화박물관이 지난 5년간 수집한 2200여점의 만화작품 가운데 1950, 60년대 만화 중에서 출간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거나 만화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 16편(15명, 18권)을 1차적으로 선정, 제작한 것이다. 특히 잉크나 인쇄, 책 모양을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당시 만화 문화는 물론 시대상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1집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은 최상권(헨델박사 1952년), 김용환(코주부 삼국지 1953년), 박광현(최후의 밀사 1,2,3편 1950년), 김경언(칠성이 유격

대 1959년), 방영진(명탐정 악동이 1961년), 신동우(뽕점이 1963년), 장병욱(바이킹 1960년), 최상록(일본에서 온 아이 1963년), 박기정(도전자 1965년), 서정철(부평초 1960년), 추동성(아짱에 1962년, 현 고우영), 왕현(얼룩유격대 1960년), 박기당(엽전 열닷냥 1961년), 김성환(세태만상 1954년), 김경연(왕 1962년), 김종래(황금가면 1964년) 등이다.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료를 소장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영인본이라도 만들어 만화관련 기관 및 학과 등에 전달해 줌으로써 만화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를 기획한 이용철 학예팀장은 "시리즈를 전부 소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쉬움은 있지만, 우선 한국 만화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유명 작품들을 중심으로 1집을 만들었다. 올해 안에 2집을 만들 예정이며, 부수도 200부로 늘릴 계획이다. 1집은 100부

만 제작해 관계기관 및 학과에 보냈는데 일반인들과 이번에 보내드리지 못한 단체 등에서도 요청이 있어 부수를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세상 밖으로 나온 영인본들은 생각보다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호평은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며, 부천이 만화의 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영인본에 관심은 많지만 소장본을 기증하면서 만화 자료로 써 달라고 부탁하는 이는 아직 없다고 한다.

이용철 팀장은 "이렇게 희귀만화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제작 부수로 늘릴 계획이지만, 희귀만화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 조금 아쉽다. 아무쪼록 본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공개해 만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만화산

빛을 보다



'회귀만화 영인본 1집' 16편 18권

업 발전을 위해 각종 이벤트와 학술자료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옛 방식대로 제본 못해 아쉬워

'회귀만화 영인본 1집'을 가만히 보면 금방이라도 먼지가 폴폴 날릴 것만 같다. 표지도 만지면 사정없이 찢어질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책들이 오래된 느낌이 들지만 그 중에는 양장제본이 된 것도 있다. 그 당시 만화책치고는 너무 고급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처럼 원본과 비슷하게 재현하는데는 디자인클럽의 박철오 실장(대표)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처음에 부천정보센터로부터 작업 의뢰를 받고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 우선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충무로에 나가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인쇄인들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비슷한

지질을 찾기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50년 가까이 된 책들이라 정확한 지질을 알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지질을 선택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박 실장은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질의 선택과 인쇄방법을 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당연히 오프셋인쇄를 해야하지만 그 당시 만들어진 만화책은 전부 활판인쇄였기 때문에 느낌도 틀리고 잉크도 검은색 계통, 파란색 계통, 녹색 계통이어서 이 또한 비슷하게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막상 본 작업에 들어가 스캔을 받고 복원을 할 때는 평소에 하던 대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라 보인다.

"복원작업 중 힘들었던 것은 박광현 선생의 '최후의 밀사' 처럼 컬러가 들어간 것이었다. 여기에는 붉은 색이 들어갔는데 누렇게 변하거나 오염된 부분을 조금 하얗게 처리하면 가뜩이나 거칠고

큰 붉은 색의 망점이 날아가 버리기도 해서 이를 적절히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부천에 위치한 디자인클럽은 인쇄작업만큼은 서울의 충무로에서 해결했다. 컬러인쇄는 삼보인쇄사(대표 양재광)에서 하고 내지 단색은 한영인쇄사(대표 이영호)에서 작업을 했다. 아무래도 영인본 작업은 경험이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인쇄인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100부 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인데도 성심성의껏 일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색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 작업을 해 주실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셨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본이라고 한다. 제작자의 의도대로 원본과 가깝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변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예전에는 제본을



편철로 했으나 지금은 이것을 하는 데가 없어서 무선철로 하거나 얇은 책은 스테이플러로 제본을 했다. 좀더 완벽하게 작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원본과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제본에서 방향이 많이 빗나가 못내 아쉬워하는 박 실장은 “두 달에 걸친 고된 작업이었지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작업이라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지질 선택에서부터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현대식으로 복원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영인본 작업을 만화사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원, 추진될 예정이다.



- ▲ 2색 인쇄된 본문내용
- ◀ 훼손된 뒤 표지의 판권

삼진날(음력 3월 3일, 2004년 4월 21일)

유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로 제비맞이 하는데서 유래되었고 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하는데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풍속

제비마중 - 이날 제비를 먼저 보면 그 해 운이 좋으나 늦게 보면 나쁘다고 한다. 처녀들은 처음 보는 제비를 향하여 긴 옷고름으로 고를 걸면 그 해가 좋다고 한다. 집에서 새 싹을 삶아 밀가루와 버무려 찐 싹 버무래기를 해 먹었다고 한다.

삼진날놀이 - 사내아이들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놀고, 계집아이들은 물고풀을 뜯어서 대나무쪽에 풀끝을 실로 매고 머리를 땅아 가는 다란 나무로 쪽을 찌고 형겅조각으로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혀 새 각시 모양을 하여 요, 이불, 배개, 병풍을 차려 놓고 『각시놀음』을 하고 논다.

화전놀이 - 떡, 술을 준비해 단체로 소인끼리, 젊은이끼리, 부녀자끼리 패를 지어 산수 좋은 곳을 찾아가 노는 놀이로, 꽃놀이라고도 한다.

화전(花煎), 수면(水麵) - 진달래꽃을 찹쌀

가루에 반죽하여 둥글게 지저먹는 것을 화전이라 하고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꽃물에 넣고 꿀을 타서 잣을 넣어 만든 것을 수면이라 하여 서로 나누어 먹었다.

삼진날떡

- 산떡 : 흰떡을 하여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팔을 넣고 다섯가지 색을 들어 다섯 개를 이어 구슬을 꿰 것 같이 만든 떡
- 고리떡 : 찹쌀과 송기와 썩을 넣어서 만든 떡
- 썩떡 : 부드러운 썩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섞어 찌서 만든 떡
- 장담그기 : 고추나 숯을 띄워놓고 부정한 것을 막고 원새끼를 꼬아 금줄을 친다.

세
시
풍
속